

이상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장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유아와 함께 장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관점에서도 종일반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과 교수·학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학원 이용 현황

이윤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영유아 대상의 공교육·보육기관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근간은 이 두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총 영유아 인구의 약 44%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4%에 해당되는 미이용 영유아에 관심을 갖고 2008년 본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연구를 기본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를 전반적으로 다루되, 교육·보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가정내 양육, 개별교육, 유치원과 보육시설 과거 이용 여부, 과거 및 현재 포함 학원이용 실태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본고는 이 중에서 현재 학원이용 아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대상자 총 709사례 중 현재 학원 이용 사례는 72사례로 약 10% 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학원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방식과 유사하게 반일제 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정에만 있는 미이용 아동과는 분명 다른 사례로서 학원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체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72사례의 가구 특성, 현재 학원 이용 유형, 학원 종류, 학원선택 이유와 기준, 만족도 그리고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보육서비스 계획 등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들의 사설학원 선택 행위가 육아지원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연구 개요

1. 조사개요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72사례를 집중조명하기 이전에, 모(母) 연구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의 설문조사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지역** : 유치원 · 보육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의 6개 광역시. 이들 지역에서 만 1~2세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지역별 · 연령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700사례를 할당하였고, 지역별로 극히 소수의 사례만이 할당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별 · 연령별로 10사례씩 할당하고 나머지 사례수를 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본할당을 실시함.
- **조사방법** :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중 현재¹⁾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 총 709사례.
- **설문지 내용 및 응답사례수** : <표 1> 참조

<표 1>에 의하면 학원 이용 경험 사례는 총 96사례였으나 이 중 현재까지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는 72사례로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72사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학원 이용 실태를 다루도록 하겠다.

1) 설문조사 실시 시점(2008년 8월~9월)

<표 1> 조사 항목별 응답 사례수

조사 항목	세부항목(예)	응답대상자	응답 사례수(N)
전체 사례 대상 일반 조사 항목	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구특성 등	전체	709
과거 유치원 · 보육시설 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유치원 · 보육시설 이용 시기, 이용 기간, 이용 만족도	과거 유치원 ·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102
개별교육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최초 개별교육이용 시기, 이용 이유	한번이라도 개별교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336
현재 개별교육 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현재 개별교육 이용 정도	개별교육 이용 경험사례 중 현재 이용 중인 경우	318
학원 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학원 이용가구의 특성, 최초 이용학원의 종류, 시기, 이용패턴 정보획득경로, 선택 시 고려기준, 최초 학원 이용 이유	한번이라도 학원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96
현재 학원 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현재 주이용학원 종류, 현재 이용 학원 이용 유형, 현재 학원 이용정도, 월평균 지출비용, 정보획득경로, 선택 시 고려기준, 만족도	학원 이용 경험자 중 현재 이용 중인 경우	72

2. 용어정의

서술의 편의를 위해 주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미이용 아동** :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점인 2008년도 8월~9월 현재 만 1세~2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아와 만 3세~5세 아동 중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유아
- **주이용학원** : 미이용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 여러 개 있다면, 이 중 가장 주되게 이용하는 학원이란 뜻으로, 본고에서는 하루 이용시간이 가장 긴 학원을 의미함.
- **반일제 이상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반일제’란 하루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차용하여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원으로 사용함.
- **개별교육** :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영유아프로그램이나 (방문)학습지나 (방문)교구교육처럼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칭함.

III. 학원 이용 가구 특성

〈표 2〉는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72사례의 가구 특성을 보여준다.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핵가족 유형이 95.8%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구간에 40.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전업주부의 비율이 81.9%를 차지해서 낮시간의 주양육자는 대개 어머니들이며, 과거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닌 적이 없다’가 62.5%로 ‘다닌 적이 있다’ 37.5%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72사례를 전체 709사례와 비교해 보면(비고 참조) 항목별 경향은 유사하지만, 수치에서 차이가 있는데, 전체 709사례에 비해, 72사례 가구의 가구소득, 취업모 비율, 유아 비율, 과거 유·보 경험한 아동 등 모든 항목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표 2〉 학원 이용 가구의 특성

구분		계	비고(전체=709) ²⁾
가족유형	부부 + 자녀	95.8(69)	95.3(676)
	한부모 + 자녀	·	0.7(5)
	3세대 이상 가족	2.8(2)	3.8(27)
	(한)조부모 + 자녀	1.4(1)	0.1(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7(7)	25.4(18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6(22)	42.3(3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3(29)	22.1(157)
	400만원 이상	18.1(13)	7.5(53)
	모름 무응답	1.4(1)	2.7(19)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15.9(12)	10.2
	미취업(전업주부)	81.9(59)	89.3
	해당없음(기타)	1.4(1)	0.5
아동연령	영아	8.3(6)	42.6
	유아	91.7(66)	57.3
과거 유·보 경험여부별	유	37.5(27)	14.4(102)
	무	62.5(45)	85.6(607)

²⁾미이용 아동전체 사례수: 〈표 1〉 참조.

IV. 학원 이용 유형

〈표 3〉은 72사례의 학원 이용 유형을 보여준다. 평균 1.2개의 학원을, 하루 평균 3.7시간을 이용하면서 주당 4.2일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한 달 평균비용은 23만 4천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원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2만원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원을 일주일에 거의 매일 매일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대체기관으로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 학원을 앞에서 정의한 ‘주이용 학원’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이후 서술에서는 72사례의 현재 이용학원을 ‘주이용 학원’으로 지칭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

〈표 3〉 학원 이용 패턴

	빈도	비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계
이용 개수						
1개	61	84.7	1	3	1.2개	100.0(72)
2개	8	11.1				
3개	3	4.2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24	33.3	1	9	3.7시간	100.0(72)
1~3시간 미만	5	6.9				
3시간 이상	43	59.8				
주당 이용 일수						
1일	8	11.1	1	5	4.2일	100.0(72)
2~4일	13	18.1				
5일 이상	51	70.8				
월평균 이용 비용						
7만원 이하	13	18.1	3	92	23.4만원	100.0(72)
8~15만원	16	22.2				
16~25만원	19	26.4				
26만원 이상	24	33.3				

V. 주이용 학원 이용 현황

1. 주이용 학원 종류

주이용 학원으로 이용하는 학원의 종류를 보면 예체능 학원의 이용률이 76.4%로 가장 많으며,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 22.2%, 보습학원 11.1%,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8.3% 순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용 학원 종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영아는 총 6사례에 불과하지만 5사례가 놀이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머지 1사례는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유아는 예체능 학원을 가장 많이 다니고 있었으며(81.8%) 놀이학원 16.7%, 보습학원 12.1%, 영어학원 9.1% 순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유·보 이용 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 유·보 경험 이 있는 아동이 현재 영어학원 이용 비율이 유·보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에서 주이용 학원 종류는 분명하게 갈라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예체능 학원을,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의 경우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단 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표 4〉 주이용 학원의 종류

단위: %

학원 종류	영어학원	놀이학원	예체능 학원	보습학원	기타	계
전체	8.3(6)	22.2(16)	76.4(55)	11.1(8)	1.4(1)	100.0(72)
연령별						
영아	.0	83.3(5)	16.7(1)	.0	.0	100.0(6)
유아	9.1(6)	16.7(11)	81.8(54)	12.1(8)	1.5(1)	100.0(66)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14.8(4)	18.5(5)	59.3(16)	7.4(2)	2.2(1)	100.0(27)
유·보 경험무	4.4(2)	20.0(9)	64.4(29)	8.9(4)	.0	100.0(45)
가구소득별						
200만원이하	.0	14.3(1)	85.7(6)	.0	.0	100.0(7)
201~300만원	.0	27.3(6)	68.2(15)	4.5(1)	.0	100.0(22)
301~400만원	10.3(3)	13.8(4)	55.2(16)	17.2(5)	3.4(1)	100.0(29)
401만원이상	23.1(3)	23.1(3)	53.8(7)	.0	.0	100.0(13)
모름/무응답	.0	.0	100.0(1)	.0	.0	100.0(1)

2. 주이용 학원 선택 이유

주이용 학원으로 지금의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는 31.9%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가 30.6%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부모들은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회성 기르기와 자녀의 소질이나 특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기 위해서라는 두 개의 목적을 비슷한 비중으로 중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두 가지 외의 주이용 학원 선택 이유로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꼽았다. 이 응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와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소질을 어렸을 때부터 계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 주이용 학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 %

구분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계
전체	31.9(23)	30.6(22)	19.4(14)	8.3(6)	5.6(4)	1.4(1)	2.8(2)	100.0(72)
연령별								
영아	50.0(3)	33.3(2)	16.7(1)	.0	.0	.0	.0	100.0(6)
유아	30.3(20)	30.3(20)	19.7(13)	9.1(6)	6.1(4)	1.5(1)	3.0(2)	100.0(66)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14.8(4)	22.2(6)	40.7(11)	14.8(4)	7.4(2)	.0	.0	100.0(27)
유·보 경험무	42.4(19)	35.6(16)	6.7(3)	4.4(2)	4.4(2)	2.2(1)	4.4(2)	100.0(45)
학원종류별								
영어학원	.0	16.7(1)	83.3(5)	.0	.0	.0	.0	100.0(6)
놀이학원	52.6(10)	21.1(4)	26.3(5)	.0	.0	.0	.0	100.0(19)
예체능학원	28.6(12)	38.1(16)	9.5(4)	9.5(4)	9.5(4)	2.4(1)	2.4(1)	100.0(42)
보습학원	.0	25.0(1)	.0	50.0(2)	.0	.0	25.0(1)	100.0(4)
기타	100.0(1)	.0	.0	.0	.0	.0	.0	100.0(1)

소득계층별								
200만원이하	28.6(2)	57.1(4)	.0	.0	14.3(1)	.0	.0	100.0(7)
201~300만원	54.5(12)	22.7(5)	4.5(1)	9.1(2)	4.5(1)	.0	4.5(1)	100.0(22)
301~400만원	17.2(5)	31.0(9)	27.6(8)	13.8(4)	3.4(1)	3.4(1)	3.4(1)	100.0(29)
401만원이상	23.1(3)	30.8(4)	38.5(5)	.0	7.7(1)	.0	.0	100.0(13)
모름/무응답	100.0(1)	.0	.0	.0	.0	.0	.0	100.0(1)

주: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적절치 못함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은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유·보 무 경험 그룹보다는 유경험 그룹에서, 그리고 현재 주이용 학원으로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이용 학원 선택이유는 과거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보내게 된 이유(N=102사례)와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6〉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 (명)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기타	계
전체	24.5(25)	31.4(32)	2.0(2)	24.5(25)	15.7(16)	1.0(1)	1.0(1)	100.0(102)
영아	27.3(3)	9.1(1)	.0	18.2(2)	45.5(5)	.0	.0	100.0(11)
유아	24.2(22)	34.1(31)	2.2(2)	25.3(23)	12.1(11)	1.1(1)	1.1(1)	100.0(9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과거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주된 이유는 연령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를 보면,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31.4%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와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가 각각 24.5%로 같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주이용 학원 선택에서 2순위로 응답한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이유에서는 거의 응답하지 않았다.

미이용 아동의 부모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주이용학원을 선택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특기를 키우고’는 싶은 부모의 바람이 주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차별화된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

을 선택하는 행위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3. 주이용 학원 선택 기준

편의상의 구분일 뿐 주이용 학원의 선택 이유와 기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학원 선택시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이용 학원 선택 기준 1순위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주이용학원으로 피아노, 미술, 태권도와 같은 예체능학원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특정한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라 하겠다. 이밖에 학원을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 비용,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 등도 두루두루 고려하는 요소였다.

연령별, 유·보 경험유무별, 가구소득별 등을 불문하고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공통적이지만, 특히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이 있는 그룹과, 401만원이상의 고소득가구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학원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표 7〉주이용 학원 선택시 고려한 기준(1순위)

단위: % (명)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비용	원장·교사의 자질 (학력)	환경·시설	주변환경	주변의 평판	계
전체	51.4(37)	18.1(13)	12.5(9)	12.5(9)	2.8(2)	1.4(1)	1.4(1)	100.0(72)
연령별								
영아	66.7(4)	16.7(1)	0	0	16.7(1)	0	0	100.0(8)
유아	50.0(33)	18.2(12)	13.6(9)	13.6(9)	1.5(1)	1.5(1)	1.5(1)	100.0(88)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70.4(19)	11.1(3)	11.1(3)	7.4(2)	.0	.0	.0	100.0(27)
유·보 경험무	40.0(18)	22.2(10)	13.3(6)	15.6(7)	4.4(2)	2.2(1)	2.2(1)	100.0(45)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57.1(4)	42.9(3)	.0	.0	.0	.0	.0	100.0(7)
201~300만원	40.9(9)	13.6(3)	27.3(6)	4.5(1)	4.5(1)	4.5(1)	4.5(1)	100.0(22)
301~400만원	51.7(15)	13.8(4)	10.3(3)	20.7(6)	3.4(1)	.0	.0	100.0(29)
401만원이상	69.2(9)	15.4(2)	.0	15.4(2)	.0	.0	.0	100.0(13)
모름/무응답	.0	100.0(1)	.0	.0	.0	.0	.0	100.0(1)

주: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4. 주이용 학원의 만족도와 비용부담 정도

주이용 학원의 만족도를 묻는 5점 척도 질문에서 전 항목이 평균 3.5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아동발달단계와 관련된 정서·인지·신체·사회성·언어 발달 등 제 측면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8〉 주이용학원 이용의 만족도(N=72)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비고 ³⁾
차별화된 프로그램	11.1	58.3	27.8	2.8	.0	(3.78)	(3.23)
교사 대 아동 비율	13.9	38.9	38.9	8.3	.0	(3.58)	(3.25)
환경·시설	12.5	36.1	43.1	8.3	.0	(3.53)	(3.26)
비용	2.8	33.	47.2	15.3	1.4	(3.21)	(2.82)
원장/교사의 자질(학력)	11.1	54.2	31.9	2.8	.0	(3.74)	(3.33)
운영시간	8.3	61.1	27.8	2.8	.0	(3.75)	(3.34)
집과의 거리	15.3	56.9	20.8	6.9	.0	(3.81)	(3.78)
방학기간	13.9	44.4	33.3	6.9	.0	(3.74)	(3.31)
아이의 정서발달	22.2	55.6	19.4	2.8	.0	(3.97)	(3.44)
아이의 인지(지능) 발달	18.1	62.5	18.1	1.4	.0	(3.97)	(3.63)
아이의 신체 발달	26.4	52.8	19.4	1.4	.0	(4.04)	(3.67)
아이의 사회성 발달	23.6	58.3	16.7	1.4	.0	(4.04)	(3.65)
아이의 언어 발달	18.1	61.1	20.8	0	.0	(3.97)	(3.71)
안전·식품·영양관리(급간식 등)	11.1	50.0	34.7	4.2	.0	(3.68)	(3.39)
가정과의 연계 정도(원활한 상담)	16.7	51.4	25.0	6.9	.0	(3.78)	(3.54)

〈표 8〉에 의하면 과거 유·보 이용 시의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현재 주이용 학원의 만족도가 전 영역에 걸쳐 높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온 항목은 비용, 환경·시설이었지만 이 역시 과거 유·보 이용시 만족도의 해당 항목과 비교해 보면 높은 수치이다.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제도권 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주이

3) 과거유치원·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N=102)

용 학원에 대한 만족도보다 전 영역 모두 낮게 나온 결과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표 9〉에서 향후 이용할 교육·보육 서비스 계획에서도 현재 주이용 학원 가구에서는 전체 12.7%보다 훨씬 높은 60%가(유보 경험 유무 그룹 합쳐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주이용 학원을 계속 다니겠다는 것으로 현재 주이용 학원의 높은 만족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9〉 향후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

구분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방문) 학습지 및(교구) 교육	영어 학원	놀이 학원	예체능 학원	보습 학원	유치원·보육시설	계획 없음 (현상태유지)
전체(N=709)	13.1	3.1	6.8	8.2	8.0	0.6	47.5	12.7
유보경험여부별(N=72)								
유·보 경험유(27)	11.1(3)	.	18.5(5)	.	14.8(4)	.	25.9(7)	29.6(8)
유·보 경험무(45)	2.2(1)	6.7(3)	15.6(7)	8.9(4)	4.4(2)	.	37.8(17)	24.4(11)

과거의 유·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그룹(27사례)에서 앞으로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지금의 주이용 학원을 계속 다니겠다)가 29.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과거 유·보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이자 전체 평균에 비해 2배가 넘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 그룹에서 앞으로 영어학원(18.5%)이나 예체능 학원(14.8%)을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왔다.

과거 유·보 경험이 없는 그룹(45사례)의 경우 향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 47.5%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지금의 주이용 학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4.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체기관으로서 즉, 학원을 반일제 이상 방식—대략 주 5일, 하루 3시간 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본고에서는 주이용 학원이라 명명) 72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용방식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체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과는 분명 다른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주이용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만족도 보다 높아서 앞으로 지금의 주이용 학원을 계속해서 다닐 것으로 조사되었다.

72사례라는 적은 사례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상의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겠다.

첫째,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지원대상은 기관 중심—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이면서 저소득층 아동 중심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일반 가정의 아동들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가정의 영유아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미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이용 학원의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가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들 가구는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00% 자비(自費)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시의 비용으로 또는 그 보다 적은 비용으로, 때로는 그 보다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집 주변에 사설학원들이 많이 있으면 이들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비유하자면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여러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면(유치원, 보육시설, 놀이학원, 영어학원, 예체능학원)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라면 추가 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사설학원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일반가정을 육아지원정책의 표적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한, 부모의 사회·경제력에 따라 교육·보육 경험이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기제를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그 결과 내 자

녀는 어렸을 때부터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에서 기인한 ‘뜨거운’ 교육열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영유아를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으로 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다.

둘째, 현 육아지원정책이 취업부모 가정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이용 학원 가구에서 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사례가 적어서 선부른 진단은 어렵지만, 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육아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육아지원정책의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취업부모 가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 한다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과연 취업부모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들의 욕구가 육아지원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유·보 대체기관으로서 주이용 학원을 선택하지만 선택의 이유와 기준은 분명 달랐다. 72사례의 부모들은 유·보와 유사한 기관으로 혼동해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을 갖고 선택한다는 사실을 연구자나 정책집행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이용 학원 선택 시 ‘자녀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크게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주이용 학원은 부모의 이러한 욕구를 대체로 충족시켜 준다고 하겠다. 수요자들의 이러한 선택행위를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나 정책집행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계도(계몽)하려는 대상으로 규정하기기 보다는 이들 부모들의 판단과 선택을 겸허한 자세로 분석하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에 담으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수사(rhetoric)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